

독일어 구어의 생략 현상

Elliptical Phenomena in German Spoken Language

이재호¹, 김형민²

Zae-Ho Lie¹, Hyeong Min Kim²

요 약

생략 현상은 자연언어의 보편적인 속성에 속한다. 그러나 생략의 실현 수단은 언어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생략 현상은 동일 언어의 문어체와 구어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구어의 생략 현상은 담화참여자, 담화상황, 담화텍스트의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공간에서 발화를 구성하는 특정 언어성분이 의도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언어 현상이다. 이때 실현되지 않은 언어성분은 담화참여자가 언어내적 그리고/또는 언어외적 맥락을 통해 추론가능하다. 생략 현상의 주요 동인은 언어경제성과 정보효율성에 있다.

본 연구의 제2장은 생략 현상의 개념 정의를 다룬다. 제3장은 생략 현상을 유형에 따라 설명하며, 제4장은 생략 현상이 일어나는 주요 동기가 기술된다. 제5장은 문어성이 강한 자소적 언어실현체의 생략 현상과 구어성이 강한 음성적 언어실현체의 생략 현상이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 지를 설명한다.

핵심어: 생략 현상, 언어외적 맥락, 언어내적 맥락, 언어 경제성, 정보 효율성

Abstract

Ellipsis is a universal property of natural languages. But its means of realization differ significantly from language to language. When it comes to elliptical phenomena,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Especially ellipsis in the spoken language refers to an intentional omission of certain linguistic component in the dynamic space where discourse participants, discourse situation and discourse text interact with each other. On this occasion discourse participants can easily infer the unrealized linguistic component in terms of internal and/or external linguistic context. The drivers of linguistic elliptical phenomena are chiefly attributed to linguistic economy and informational efficiency.

In the chapter 2 of this paper we are concerned with the definition of ellipsis. In the chapter 3 we address

1 Department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oongsil Univ.,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06978, Korea
e-mail: zhlie@ssu.ac.kr (First author)

2 Department European Language and Cultures, Sogang Univ.,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Korea
e-mail: kimhyeongmin@hotmail.com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April 21.2017), Review (June 10.2017), Accepted(June 30.2017)

types of elliptical phenomena. The chapter 4 describes the chief drivers of linguistic ellipsis. In the chapter 5, it is discussed which differences there are between the written and the spoken language.

Keyword: Ellipsis(Elliptical Phenomenon), External Linguistic Context, Internal Linguistic Context, Linguistic Economy, Informational Efficiency

1. 들어가는 말

인간의 자연언어는 시니피앙 signifiant과 시니피에 signifié로 이루어진 기호체계로, 인간의 의사표현 및 인간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다. 오늘날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의사전달 및 의사소통을 위해 두 가지 의사소통매체 Kommunikationsmedium, 즉 음성적 실현체로서의 입말(구어) *gesprochene Sprache*과 자소적 실현체로서의 글말(문어) *geschriebene Sprache*을 사용한다. 그런데 단순히 '음성적 실현'과 '자소적 실현'이란 전달매체의 차이로 입말과 글말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E-Mail, SMS, 사적인 편지 등과 같은 텍스트는 자소적으로(문어적으로) 실현되나 입말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한편 설교, 학술강연, 법정 판결 등과 같은 텍스트는 음성적으로(구어적으로) 실현되나 글말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독일의 언어학자 페터 코흐 Peter Koch와 볼프 외스터라이허 Wulf Oesterreicher(1985; 1990; 1994)는 특정 텍스트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의사소통매체를 기준으로 한 '구어적(음성적)'과 '문어적(자소적)'이란 이분법적 개념 쌍과 '언어적 친밀감 sprachliche Nähe'과 '언어적 거리감 sprachliche Distanz'을 기준으로 한 '구어성 Mündlichkeit'과 '문어성 Schriftlichkeit'이란 등급화 되는 개념 쌍을 도입했다[1-3].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 독일어 구어 텍스트는 '음성적'으로 실현되고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의 '언어적 친밀감'이 깊어 '구어성'이 강한 언어실현체로 제한한다. 이와 같은 텍스트의 두드러진 특성은, 김형민(2004:236; 2005:51)에 따르면, '대면접촉 face-to-face Interaktion', '즉흥성 Spontaneität', '상황의존성 Situationsverschränkung', '구체성 Konkretheit', '자연성 Natürlichkeit', '감정성 Expressivität', '정서성 Affektivität' 등이다[4-5]. 구어성이 강한 음성적 언어실현체와 달리, 문어성이 강한 자소적 언어실현체는 의사소통 참여들 간의 시간적·공간적 격리 raumzeitliche Trennung, 공식성 Öffentlichkeit, 상황 비의존성 Situationsentbindung, 추상성 Abstraktheit, 인위성 Künstlichkeit, 객관성 Objektivität, 정확성 Exaktheit, 명료성 Deutlichkeit, 논리성 Logizität 등의 주요 속성을 갖는

대[6]. 특히 구어성이 강한 음성적 언어실현체는 의사소통 상황의 의존성, 언어경제원칙 Prinzip der sprachlichen Ökonomie, 정보전달의 효율성 Effektivität der Informationsübermittlung에 근거하여 다양한 문체적 표현수단을 활용한다. 그와 같은 표현수단에 가장 대표적인 언어현상으로 파격구문 Anakoluth, 삽입구문 Parenthese, 생략구문 Ellipse 등이 속한다.[7-8]

본 연구의 대상은 구어성이 강한 음성적 언어실현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어현상들 중 생략 현상이다. 제2장은 생략 현상의 개념 정의를, 제3장은 생략 현상의 유형을, 제4장은 생략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동기를 다룬다. 제5장은 문어성이 강한 자소적 언어실현체와 구어성이 강한 음성적 언어실현체의 생략 현상을 기술한다.

2. 생략 현상의 개념

자연언어의 생략 현상은 학문영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평가되어왔다. “문법적으로 잘 짜인 완전한 문장 wohlgeformter, vollständiger Satz”을 이상적인 표현방식으로 여긴 전통규범문법 traditionale normative Grammatik은 생략 현상을 “규칙 위반 Regelverstoß”, “문장성분의 결여 Mangel von Redeteilen”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Matuschek 1994:1017 참고).[9] 그에 반해 수사학 Rhetorik, 구어연구 Gesprochene-Sprache-Forschung, 화용론 Pragmatik 등의 학문분야는 생략 현상을 “의사소통에서 경제적 언어사용 방식 Verfahren ökonomischer Sprachverwendung in der Kommunikation”(Metzler Lexikon Sprache 1993:161)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10] 이런 입장에서의 생략 현상은 ‘언어 경제 원칙 Prinzip der Sprachökonomie’에 의거하여 소리 없이 의미를(또는 시니피앙 없이 시니피에를) 지니게 하는 언어수단 내지 ‘텍스트의 표층구조에서 특정 언어성분을 어휘화하지 않는 언어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어휘화되지 않은 언어성분은 선지식 Vorwissen, 문맥 Kontext, 상황 Situation 등에 근거하여 복원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생략은 ‘언어 맥락과 상황 맥락의 도움으로 복원 가능한 언어성분을 어휘화하지 않는 언어현상’으로 정의 된다.

3. 생략 현상의 유형

1970년대 이후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구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기 구어 연구는

특히 구어와 문어의 통사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문어와 비교하여 구어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일련의 통사현상, 예를 들어, 생략 현상, 파격구문, 삽입구문, 틀구조 해체현상 Ausklammerung 등에 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생략 현상은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 내지 발화'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하면, 특정 언어성분이 실현되지 않아 불완전한 문장 내지 발화로 여겨질 수 있다(Weiss 1973:31 이하 참고).[11] 카페의 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손님이 카페에 들어와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손님에게 다가간다. 종업원이 손님에게 단지 인사를 건네었는데, 손님은 '커피 한 잔 주세요! Eine Tasse Kaffee, bitte!'라고 말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손님이 소위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려고 했다면,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Ich möchte eine Tasse Kaffee trinken.', '저에게 커피 한 잔 주십시오! Bringen Sie mir eine Tasse Kaffee, bitte!', '제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까? Könnte ich eine Tasse Kaffee haben?' 등의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Eine Tasse Kaffee, bitte'에 서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과 비교하여, 주어, 화법조동사, 본동사가 언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종업원이 손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 오히려 손님은 자신의 의도를 종업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카페라는 언어외적 상황 설정이 큰 역할을 한다.

3.1 언어 맥락의 도움으로 복원 가능한 생략

'언어 맥락의 도움으로 복원 가능한 생략'은 선행 발화가 후행 발화의 생략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후행 발화의 특정 언어성분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선행 발화의 도움으로 실현되지 않은 언어성분이 복원 가능하기 때문이다.

1. A: Ja, das genügt ja auch.
B: Ja mir nicht. (Rath 1979:143)

(1)에서 B 발화의 통사적 구조는 A 발화의 통사적 구조를 기초하여 추론 가능하다. 따라서 B 발화는 문법적으로 불충분한 발화이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만약 B의 발화가 선행 발화와 통사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그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Mir gefällt

das nicht! 그것은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 'Mir leuchtet das nicht ein! 나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Mir ist nicht kalt! 난 춥지 않아!', 'Mir gehört das nicht! 그건 내 것이 아냐!' 등.

그러나 (1)의 경우, A 발화의 통사적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동사 'genügen'이 3격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B가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mir'와 'nicht'만 발화하더라도 소통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B가 'ja mir genügt das nicht 나에게겐 충분하지 않아!'와 같이 문법적으로 완전하게 발화한다면, 이는 오히려 대화의 긴장감과 몰입에 방해요인이 될 지도 모른다. (1)의 경우처럼, B가 A에게 새로운 정보만을 언급함으로써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8]

2. A: [...] sie empfinden ihre Tochter als schwierig oder als nicht schwierig?
B: Ja ich habe sie als schwierig empfunden.
A: Ihre Tochter sie auch? (Rath 1979:154)

(2)의 'Ihre Tochter sie auch?'에는 실현되지 않은 언어성분이 있어, 선행 발화의 도움 없이 그 자체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Hat ihre Tochter sie auch geliebt? 그녀의 딸도 그녀를 사랑했냐?', 'Hat ihre Tochter sie auch gehasst? 그녀의 딸도 그녀를 미워했냐?' 'Hat ihre Tochter sie auch gesehen? 그녀의 딸도 그녀를 보았냐?' 등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 발화의 도움으로 'Hat ihre Tochter sie auch als schwierig empfunden? 그녀의 딸도 그녀를 어렵게 생각했니?'가 복원 가능하다.

3.2 언어외적 맥락의 도움으로 복원 가능한 생략

의사소통 참여자가 언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언어성분을 공통의 상황 맥락, 선지식, 세계지식 등의 언어외적 맥락의 도움으로 복원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를 '언어외적 맥락의 도움으로 복원 가능한 생략'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종류의 생략구문에서는 선행 발화와 통사적으로 연관성보다는 의미적·화용론적 연관성에 근거하여 언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테마요소가 추론 가능하다 (Rath 1979:146 참고).[12]

3. A: Und jetzt macht er es nich mehr?

B: Nein, wir haben den Stand schließen lassen nich? Geschäftsschädigung

(3)의 B 발화 'Geschäftsschädigung'은 선행 발화와 통사적 연관성이 희미하여 두 발화 간의 연관성을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대화가 벌어지는 언어외적 맥락의 도움으로 B의 두 발화 사이의 의미적·화용론적 연관성이 추론될 수 있다. B의 해당 발화는 'Der Stand ist wegen Geschäftsschädigung geschlossen worden.'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A: Sehr schön das Service nich?

B: Ja

A: Öh für zwölf Personen neunhundertvierzehn

B: Aber sehr ja praktisch ja wirklich sehr gebunden nich? (Rath 1979:149)

(3)과 달리, (4)에서는 A의 발화 'Öh für zwölf Personen neunhundertvierzehn 열두 사람에 914'는 선행 발화와 통사적·의미적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해당 발화에서 '914'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원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4)의 대화가, 예를 들어 관광지에서 안내원과 관람객 사이의 대화라고 가정한다면, 실현되지 않은 언어성분이 어렵지 않게 복원 가능하다. 즉, 'Das Service ist für 12 Personen und es kostet 914 Euro. 서비스는 12명을 위한 것이며, 가격은 914 유로입니다.'가 추론될 수 있다.

언어외적 맥락의 도움으로 복원 가능한 생략의 또 다른 예로 일기예보가 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들을 때, 정보전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상내용을 언어적 맥락보다는 '일기예보'란 상황적 맥락을 통해 추론하여 이해한다. 구체적인 예가 아래 (5-6)에서 제시된다.

5. a. Mittagstemperaturen um Null Grad.

b. Die Mittagstemperaturen werden um Null Grad liegen.

6. a. Nachts leichter bis strenger Frost.

b. Nachts wird leichter bis strenger Frost herrschen.

(5a)와 (6a)는 기상캐스터의 발화이다. 두 발화 모두는 술어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기예보란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면, (5a)는 (5b)로, (6a)는 (6b)로 이해될 수 있다.

3.3 질의-응답의 도움으로 복원 가능한 생략

묻고 대답하는 대화연속체에서는 질의와 응답은 밀접한 상호텍스트 연관성을 보인다. 응답은 질의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질의에서 이미 실현된 언어성분이 응답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실현되지 않은 언어성분은 선행 질의를 토대로 어렵지 않게 복원 가능하다(Selting 1997:129 참고).[13]

7. A: Hat Peter den Brief bekommen?

B: Ja.

8. A: Hat Peter den Brief bekommen?

B: Ja, er hat ihn bekommen.

9. A: Hat Peter den Brief bekommen?

B: Ja, Peter hat den Brief bekommen.

(7-9) A의 결정의문문에 대한 긍정 대답으로 (7B), (8B), (9B)가 모두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대화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8B)와 (9B)는 (7B)에 비해 자연성 *Natürlichkeit* 이 떨어진다.

선택의문문의 예를 들어보자.

10. A: Wohin fährst du denn?

B: (Ich fahre) Nach Hause.

(10) A의 선택의문문의 대한 대답으로 'Ich fahre nach Hause.'와 'Nach Hause.' 둘 다 가능하

다. 응답으로 'Ich fahre nach Hause'에서는 선행 질문으로부터 어려움 없이 추론 가능한 'ich fahre'와 질문자가 듣고 싶은 정보의 핵심내용인 'nach Hause'가 실현된다. 한편 또 다른 응답인 'Nach Hause.'에서는 레마요소만이 실현된다(Brinkmann 1972:147).[14]

4. 생략의 동기

정보전달자가 정보수용자에게 정보전달을 위해 언어화 전략을 세울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정보전달자는 정보수용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어려움 없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일련의 전략적 방안들을 선택한다. 그 중 하나가 생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략은 정보 전달에 비관여적인 테마적 언어요소 *thematische Sprachelemente*를 가능한 한 실현하지 않고, 정보전달의 관여적인 레마적 언어요소 *rhematische Sprachelemente*를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언어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전달자는 정보수용자와 공유하는 언어내적·언어외적 맥락, 세계지식에 근거하여, 정보전달에 비관여적인 요소를 되도록 실현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경향을 보인다. 이런 심리적 경향이 언어학의 테두리에서 주로 '언어 경제성'과 '정보 효율성'으로 설명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언어 경제성'과 '정보 효율성'은 서로 전혀 별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호연관성을 맺는다.

4.1 언어 경제성

경제학의 '경제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 창출'이다. '최소한의 언어요소를 실현하여 정보전달의 최대 효과를 창출'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언어 경제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Rath(1979:132)는 정보전달자가 언어적 실현의 적은 노력으로 소기의 정보전달 효과를 낳았을 때 '언어 경제성' 또는 '언어 경제 원칙'이란 말을 사용한다.[12] 이때 물론 정보전달자가 언어요소를 임의적으로 실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보전달자는 언어내적·언어외적 맥락, 의사소통 참여자가 공유한 공통의 지식에 기초하여 정보수용자의 이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언어요소를 실현하지 않을 수 있다.

11. A: Tut mir leid, Kinder, aber wenn das so weitergeht, müsst ihr sonntags hier bleiben.

B: Sonntags?

(11) A의 통사구조는 B의 발화에서도 계속 유효하다. A의 발화에 대해 반문하는 B의 질문은 'Müssen wir wirklich sonntags hier bleiben?'으로 실현가능하다(Brinkmann 1972, 147).[14] 그러나 구체적인 언어생활에서 'Sonntags?' 대신에 통사적·의미적으로 완전한 발화체인 'Müssen wir wirklich sonntags hier bleiben?'이 실현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Betten (1976:225)은 정보 전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에 비관여적인 정보요소를 발화하는 것은 언어 경제성의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한다.[7]

12. A: Wie geht es Peter?

B: Dem geht es gut, der fährt morgen in Urlaub.

A: Allein?

B: Nein, mit seiner Freundin.

A: Und wohin?

B: Nach Frankreich.

13. A: Wie geht es Peter?

B: Dem geht es gut, der fährt morgen in Urlaub.

A: Fährt Peter morgen allein in Urlaub?

B: Nein, er fährt morgen mit seiner Freundin in Urlaub.

A: Und wohin fährt er morgen in Urlaub?

B: Er fährt morgen nach Frankreich in Urlaub.

(12~13)을 비교해 보자. (12)는 언어내적·언어외적 맥락, 의사소통 참여자의 공통 지식에 근거하여 특정 언어요소들이 실현되지 않은 예이며, (13)은 (12)에서 생략된 모든 언어요소를 복원한 예이다. 그런데 (13)은 실제 의사소통상황에서 출현되지 않는 예임에 분명하다. 이는 반복되거나

비관여적인 언어요소의 생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4.2 정보 효율성

구체적인 구어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보전달자는 정보수용자에게 가능한 한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지향한다. 이때 정보전달자는 테마적 언어요소를 언어이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실현하지 않고, 레마적 언어요소를 가능한 한 부각시키려는 언어전략 Sprachstrategie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4. A: Wo warst du denn?

B: In der Stadt.

(14)의 B는 A의 질문에 대해 'Ich war in der Stadt.' 대신에 'In der Stadt.'로 대답한다. 그의 대답을 정보구조 Informationsstruktur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테마 Thema에 해당되는 언어요소인 'ich war'가 실현되지 않고, 레마 Rhema에 해당되는 언어요소인 'in der Stadt'만이 실현되어 있다. 이는 B가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언어화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전달자가 비관여적인 언어요소를 실현하지 않고, 관여적인 언어요소만을 실현함으로써 정보전달의 핵심 내용을 부각시킨다. 이는 Grice의 양의 격률 Maxime der Quantität인 '필요 이상의 정보를 담지말라!'과 일맥상통한다(Schwitalla 1997:70).[15]

15. Man spricht vom vom heiligen Sakrament der Ehe. Jedenfalls bin ich wiederum so erzogen worden. Unlösbar. Nichts is nich ne Scheidung is nich möglich.

(15)의 발화 'Unlösbar'는 강한 악센트로 정보전달자의 감정적 요소를 표현한다. 해당 발화는 'Die Ehe darf/soll nicht gelöst werden.', 'Man darf/soll die Ehe nicht lösen.', 'Die Ehe ist unlösbar.' 등과 같이 발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발화에서 정보전달자는 'Unlösbar'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정보전달자가 생략 현상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보수용자에게 보다 강력하게 각인시키려는 언어화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의 전형적인 상황맥락이 언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언어적 선행 맥락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상황맥락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전달의 도입요소인 테마의 실현 없이 곧바로 레마가 실현될 수 있다.

16. Einmal Köln und zurück

(16)은 기차역의 매표창구에서 승차승객이 매표원에게 건내는 발화이다. 이때 매표원은 상황맥락에 기초하여 레마요소로만 실현된 발화체를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다. 매표원은 실현되지 않은 테마요소를 상황맥락으로부터 복원할 수 있다. (16)은 'Ich möchte einmal Köln und zurück haben.'의 생략구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17. Fünf Brötchen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보자. (17)은 빵가게에서 손님이 빵집 주인에게 건내는 발화이다. 물론 빵집 주인은 상황맥락을 바탕으로 손님의 발화를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다. 빵집 주인은 실현되지 않은 테마요소를 '빵집'과 '주인과 손님'이라는 상황맥락으로부터 복원할 수 있다. (17)은 'Ich möchte fünf Brötchen haben.'의 생략구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18. Feuer!

(16-17)과 마찬가지로, (18) 역시 상황맥락이 정보전달자의 발화 의도를 해석하는데 결정적이다. '화재'라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18)은 레마요소만을 가지고, 정보전달의 효율성은 물론, 발화자의 '다급함', '놀람' 등의 감정적 요소를 강렬하게 전달한다.

5. 문어와 구어에 나타난 생략의 차이점

생략 현상은, 문어성이 강한 언어실현에서든 구어성이 강한 언어실현에서든, 언어의 보편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연구들은 구어체의 생략 현상을

등한시 한 채, 문어체의 생략 현상에 연구력을 집중시켰다. 구어체의 생략 현상이 주목을 받지 못한 원인은 언어연구가 통사적·의미적으로 완전한 문장의 분석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생략 현상은 구어성이 강한 언어실현이나, 문어성이 강한 언어실현이나에 따라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문어체의 생략 현상은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전제로 통사적·의미적 기준에 의하여 반복된 단어나 어휘가 실현되지 않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문어성이 강한 언어실현에서의 생략은 기본적으로 통사적·의미적 기준에 의거하여 회복가능성을 타진한다. 한편 구어체의 생략 현상은 문어와 달리 통사적·의미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화자가 의사소통상황에서 의미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판단한 특정 언어요소를 실현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구어성이 강한 언어실현에서의 생략은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청자의 이해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구어에서 화자의 발화는 구체적인 의사소통상황에서 언어 내적·언어외적 맥락,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사전지식 내지는 세계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되고 수용된다. 그로 인해 구어에서의 생략 현상은 통사적·의미적 회복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을 고려하는 화용론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Rath (1979:137)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전제로 생략된 부분의 회복가능성이란 기준으로 구어의 생략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12]

6. 나가는 말

구어성이 강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는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청자에게 정보를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거나, 레마적 언어요소를 가능한 한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언어전략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화자는 정보전달에서 비관여적인 부분이나 덜 관여적 irrelevant인 부분을 생략하는 언어전략을 주로 선택한다. 그래서 구어성이 강한 언어 실현의 생략 현상을 기술·설명·해석할 때 초점을 주로 맞춰야 할 부분이 언어경제성과 정보전달의 효율성인 셈이다. 정보전달자는 정보수용자가 어렵지 않게 복원 가능한 언어요소를 언어적으로 빠짐없이 실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언어경제성과 정보전달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어성이 강한 언어 실현의 생략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고 설명할 때에는 통사적·의미적·화용론적 측면이 상호연관성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청자가 생략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언어내적 맥락과 언어외

적 맥락을 모두 활용한다는 사실에 있다. Rath(1979:152)는 구어적 의사소통상황에서 청자가 생략된 언어요소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언어내적·언어외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2]

본 연구자들은 '구어성이 강한 구어실현체', '문어성이 강한 구어실현체', '구어성이 강한 문어실현체', '문어성이 강한 문어실현체'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언어실현체에서 나타나는 생략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정보전달자의 언어화전략'이란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해석·설명될 수 있을 지를 다루지 못해 깊이 아쉬워한다. 본 연구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후속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을 기약하며, 본 연구자들은 깊은 아쉬움을 달랜다.

References

- [1] Peter Koch & Wulf Oesterreicher, Sprache der Nähe - Sprache der Distanz. Mündlichkeit und Schriftlichkeit im Spannungsfeld von Sprachtheorie und Sprachgeschichte, Romanistisches Jahrbuch, (1985), Vol. 36, pp. 15-46.
- [2] Peter Koch & Wulf Oesterreicher, Gesprochene Sprache in der Romania: Französisch, Italienisch, Spanisch,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90).
- [3] Peter Koch & Wulf Oesterreicher, Schriftlichkeit und Sprache, in: Schrift und Schriftlichkeit. Ein interdisziplinäres Handbuch internationaler Forschung. 1. Halbband, Edited Hartmut Günther & Otto Ludwig, Walter de Gruyter, Berlin & New York, (1994), pp. 586-604.
- [4] Hyeong Min Kim, Direktheit der Redewiedergabe - Indirektheit der Redewiedergabe, Deutsche Sprach- und Literaturwissenschaft, (2004), No. 27, pp. 219-242.
- [5] Hyeong Min Kim, Direkte Rede vs. indirekte Rede: Ein "unglücklich" verbundenes Begriffspaar,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2005), No. 27, pp. 41-56.
- [6] Rainer Rath, Strukturelle Aspekte und kommunikative Funktion sprachlicher Verkürzungen, Grazer Linguistische Studien. (1979), Vol. 10, pp. 217-239.
- [7] Anne Betten, Ellipsen, Anakoluthe und Parenthesen. Fälle für Grammatik, Stilistik, Sprechakttheorie und Konversationsanalyse?, Deutsche Sprache. (1976), Vol. 4, No. 3, pp. 207-230.
- [8] Johannes Schwitalla, Gesprochene Sprache dialogisch gesehen, in: Handbuch der Dialoganalyse, Edited Gerd Fritz & Franz Hundsnurscher, De Gruyter, Tübingen, (1994), pp. 17-36.
- [9] Stefan Matuschek, Ellipse,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Rhetorik. Band 2: Bie – Eul, Edited Gert Ueding,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94), pp. 1017-1022.
- [10] Metzler Lexikon Sprache, Edited Helmut Glück, Verlag J.B. Metzler, Stuttgart & Weimar, (1993).
- [11] Andreas von Weiss, Syntax spontaner Gespräche. Einfluß von Situation und Thema auf das Sprachverhalten, Schwann, Düsseldorf, (1975).
- [12] Rainer Rath, Kommunikationspraxis,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79).
- [13] Margret Selting, Sogenannte ‚Ellipsen‘ als interaktiv relevante Konstruktionen? Ein neuer Versuch über die Reichweite und Grenzen des Ellipsenbegriffs für die Analyse gesprochener Sprache in der konversationellen Interaktion, in: Syntax des gesprochenen Deutsch, Edited Peter Schlobinski,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1997), pp. 117-155.
- [14] Hennig Brinkmann, Reduktion in gesprochener und geschriebener Rede, in: Gesprochene Sprache, Edited Hugo Moser, Schwann, Düsseldorf, (1972), pp. 144-162.
- [15] Johannes Schwitalla, Gesprochenes Deutsch. Eine Einführung. Erich Schmidt Verlag, Berlin, (1997).